

제1법칙

기본 원칙

이 장에서
배울 내용

Seongboon Chotbbonsberg Via Getty Images

각 개인은 선택해야만 한다.

미 국경제학회의 연례모임에는 나이가 지긋하거나 젊거나,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한다. 그곳에서는 책도 판매하고 비즈니스 회의도 열리고 채용을 위한 면접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로 경제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다른 경제학자들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다. 미래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맞벌이 부부 중 누가 요리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게는 60개 이상의 발표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주식 시장 전문가는 집안일의 경제학에 대해서 거의 모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미나 방을 잘못 찾아가서 전혀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는다 하더라도 친숙한 주제에 대해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들 중 일부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돈을 아껴서 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차를 구입할 것인가? 당신의 낡은 스

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꿀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으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 경제학의 모든 질문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인의 선택에 의해 조성된 환경하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사실 현대 경제에서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까?' 같은 간단한 의사결정도 매우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코스타리카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사람에서부터 콘플레이크에 들어가는 옥수수를 제공하는 아이오와의 농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의사결정이 내가 아침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 ▶ 경제학과 경제와 관련된 정의들
- ▶ 개인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원칙들
- ▶ 개인적 선택이 상호작용하여 경제가 어떻게 이해하기 위한 원칙들
- ▶ 경제 전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원칙들

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지만,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작용, 즉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대다수의 중요한 경제적 상호작용은 옥수수 시장과 같은 개별 상품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부침이 있기 마련이므로 경제 전체 상황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상품시장과 더불어 경제 전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경제학 전반을 공부하며, 우리는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에 관한 공통의 원칙들을 탐구할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경제학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열두 가지의 경제학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중 네 가지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 다섯 가지는 선택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경제 전체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

일상생활로서의 경제

시민지 시대의 미국인을 지금 우리 시대로 데려온다고 상상해 보자. 이 시간여행자는 평범한 가정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함이 보여 주는 현대 미국의 번영에 가장 놀랄 것이다. 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를 보면서 '내가 저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의 일부라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가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경제(economy)**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학(economics)**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19세기 위대한 경제학자인 마샬(Alfred Marshall)은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경제의 성공 여부는 재화를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18세기에서 온 시간여행자뿐만 아니라 1950년대를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운반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과거의 미국 경제나 몇몇 다른 나라들의 오늘날 경제와 비교해서 미국은 놀랄 정도의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여행자는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 경제는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개인의 결정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로 보내야 한다고 명령하는 중앙권력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별 생산자는 스스로 가장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생산하고 개인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한 상품을 구매한다.

시장경제체제 외에도 중앙권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통제경제**가 있다. 중앙통제경제는 1917~1991년 사이 구소련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중앙통제경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 구소련의 생산자들은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얻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사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소비자들도 종종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중앙통제경제라고 하면 상점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아무리 복잡한 경제활동이라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 만약 수천 개의 사업체들이 빚어내는 무계획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사업행위로 인해 어떤 대도시에 식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며칠 동안 굶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시장경제체제의 무계획적인 '혼돈'은 중앙통제경제의 잘 짜인 '계획'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다.

1776년 경제학의 개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사업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스미스는 책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이윤 추구를 의도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아담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가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을 연결하는 방식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

경제(economy)는 사회의 생산적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경제학(economics)은 개인과 사회의 두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이 생산자와 소비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비유이다.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라고 한다. 미시경제학의 주요 주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직관이 갖는 유효성이다. 따라서 시간여행자가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번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시장경제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배우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 그리고 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대별 경제학



© Teet Pail. Reprinted with permission of Universal Press Syndicate. All rights reserved.

나의 편익, 너의 비용

시간여행자가 현재에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통체증일 것이다. 사실 미국인들의 생활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지만 교통체증만큼은 더 심각해졌다.

길이 막히면, 각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의 길을 막은 것이 된다. 주요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는 경우, 그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15달러 이상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근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이 비용을 고려할 유인이 전혀 없다.

교통체증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가장 친숙한 예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났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과 어류나 삼림과 같은 천연자원의 과도한 소비 등이 있다.

반가운 소식은 시장실패 사례를 진단하는 데 경제학적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경제학적 분석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호황기와 불황기

우리의 시간여행자는 행복한 소비자들로 북적이는 쇼핑물을 익숙하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동안, 미국의 백화점들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미국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었고, 기업들은 대량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는 현대 경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이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시스템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상황은 항상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 중년의 전형적인 미국인이라면 **불황기(recessions)**라고 불리는 서너 번의 경기침체를 경험했을 것이다. 1973년, 1981년, 1990년, 2001년, 그리고 2007년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났다고 한다.

불황기(recessions)는 경제에서의 침체기를 의미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경제 전반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관심을 갖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개인적 선택(individual choice)이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결정이다.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불황도 시장경제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또한 시장실패와 같이 불황은 경제학적 분석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불황은 경제 전반의 호/불황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주요 관심 주제이다.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학자들이 불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상승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발전과 성장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0세기 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극도로 빈곤하게 살았다. 10%의 가정에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8%만 난방이 되었으며 2%만 전기가 공급되었다. 또한 식기세척기나 에어컨, 심지어 차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비교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능력이 증가하였으며,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운택하게 변화했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경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경제성장이 일어나는가? 1번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제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의 주요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한 일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더 흥미 있고 중요한 문제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이 그렇듯 단순히 대답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경제학 입문에 해당한다. 경제학을 ‘평범한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묘사한 알프레드 마샬의 말처럼, “경제학은 사실의 요체가 아니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엔진 역할을 한다.”

그러니 열쇠를 돌리고 엔진을 켜자.

▶ 복습

-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와 경제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시장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을 연결한다.
- 미시경제학은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데, 이들의 결정은 때때로 시장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 거시경제학은 불황과 같은 경기변동을 연구하는데, 불황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해돕기

1-1

1. 다음 문장 중 어떤 것이 시장경제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가?
 - a.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긴밀히 협조시킨다.
 - b. 중앙권력기구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c. 개인의 이익 추구는 때때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 d.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성장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해답은 책 뒤에)

개인적 선택을 설명하는 원리 : 경제학의 핵심

기 본적으로 모든 경제학의 쟁점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개인적 선택**(individual choice)과 연관된다.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경제학이 아니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월마트나 타깃과 같은 대형 매장에 들어가 보자. 그곳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는 없다. 당신의 기숙사나 아파트에 아주 작은 공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자. 책장과 조그마한 냉장고를 모두 구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과 공간하에서 둘 중에 어느 물건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매장선반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선택의 결과이다. 제조업자는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지 선택하였고, 매장 관리자는 어떤 물건을 진열할 것인지 선택하였다. 이처럼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적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표 1-1〉에 제시된 네 가지 경제학 원리들은 모두 개인적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이 원리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 1 :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하다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좋은 위치의 아름다운 집과 한두 대의 고급 승용차를 가지기를 원하고,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디즈니월드에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차를 살 것인지, 뒤뜰이 작은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땅값이 싼 대신에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집을 살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 모두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한정된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시간 역시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다. 즉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쓰기로 했다면 밤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은 일반 슈퍼마켓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마켓에 가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을 설명한다.

개인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원(resource)**은 다른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뜻한다. 경제의 자원을 열거할 때 먼저 토지, 노동(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자본(기계, 건물, 그 밖의 사람이 만든 생산적인 자산), 그리고 인적 자본(교육 정도와 숙련도)을 생각한다. 자원의 양이 모든 생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자원이 **희소(scarce)**하다고 한다. 광물, 목재,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도 희소한 자원 중 하나이다. 노동, 숙련도, 지성 등과 같은 인적 자본 역시 희소하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물도 희소한 자원이 된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사회가 선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장경제에서 주로 택하는 것처럼 개인적 선택에 맡긴 후 그 결과를 사회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편의점에 가서 시간을 아끼는 대신 더싼

표 1-1 개인적 선택에 관한 경제학의 기본 원칙

1. 개인들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2.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다.
3. '얼마나 많이?' 와 관련된 한계결정은 한계 상황에서 상충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 활동을 아주 약간 더 하는 것과 아주 약간 덜 하는 것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4.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활용하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자원(resource)이란 다른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자원은 **희소(scarce)**하다. 즉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모든 생산에 필요한 양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상품의 실제 비용은 그 상품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가격에 물건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개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시간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선택은 수백만 개인이 어디에서 물건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많은 이유로 인해 사회의 선택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농지였다가 최근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그들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땅을 개발업자에게 팔지 않고 공터로 가지고 있을 유인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미개발 토지를 사들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결정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후의 장에서 공부할 것이다.

원칙 2 : 무언가의 진정한 비용은 그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선택과목만 가능하다고 하자. 그렇지만 당신이 듣고 싶은 수업은 '재즈의 역사'와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두 개이다.

'재즈의 역사'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 결정에 따른 비용은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어느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의 비용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을 설명한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다.

따라서 '재즈의 역사' 수업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그래픽'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결국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개념은 개인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오로지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만 고려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경제학적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수업 선택의 예와 관련이 있다. 앞의 예에서 수강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업료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비용은 화폐로 계산되는 비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택에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수업이라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기회비용이 화폐적인 비용에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택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재즈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는 화폐적인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그 수업을 듣기 위한 기회비용은 이 750달러와 관련 없는 것인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컴퓨터 그래픽' 수업도 역시 추가로 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관계없이 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재즈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수업뿐이다. 그렇지만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을 때에는 750달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이 경우 재즈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수업과 750달러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더 선호하는 수업의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다. 모든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기회비용이 된다.